

작은 파장이 모이고 이어져 공명하면 온누리를 흔든다



설송 백지현 기사

“유서는 남기는 글이 보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백서’가 되어야 한다.” 법정 스님 글 ‘미리 쓰는 유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스님 말씀처럼 유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백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해답은 이미 스님이 주셨다. 언제 어디서건 순간순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라.

“제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발을 막 내딛었을 때였어요. 출퇴근하면서 불교방송을 날마다 들었는데 어느 날 법정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시민운동을 하신다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입회를 했어요.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시작한 이듬해인 95년이었어요. 처음 한 일이 산에 버려진 쓰레기 줍는 활동이었어요. 나가보니까 의무봉사활동을 나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른은 저하고 학생들을 이끌고 온 지도봉사 선생님들 몇 분밖에 없었어요. 쓰레기를 줍고,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나눠주는 일을 했지요.” 느낌이 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맑고 향기롭게 역사 설송(雪松) 백지현(법원사무관, 55)기사 말씀이다.

“법정 스님은 그로부터 두 해쯤 뒤, 김천 직지사에서 수련회를 할 때 처음 보였죠. 그 뒤로 5~6년을 계속 수련회를 다녔어요. 돌아가신 동화작가 정재봉 선생님이나 맑고 향기롭게 이사이신 이계진 선생님도 수련회 동기입니다. 부안에서 농사짓던 윤구병 선생님도 김천 직지사 수련회 때 오셔서 수련회를 같이하면서 강의도 해주셨어요. 그즈음에는 어른스님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종교를 뛰어넘어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종교를 뛰어넘어 함께

하셨어요. 수련회 끝나고 수계식 때 스님께 받은 법명이 설송(雪松)입니다.” 눈 속에서도 푸른 기상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푸르게 살라는 뜻이 담긴 법명은 늘 한결같은 백지현 기사에게 안성맞춤이다.

“윤구병 선생님은 자연과 어울려 사는 법을 일러 주셨어요. 설거지 할 때도 세제를 쓰지 않고 쌀뜨물로 설거지하고, 빨래할 때도 절대 빨래비누를 쓰지

않는다는 말씀, 책을 낼 때도 재생용지를 쓴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때 부안으로 3박4일 자원활동을 가겠다고 신청했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서 가지 못했어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무척 아쉬워요. 하여간 자연과 함께하는 삶. 지금은 대안학교라 하지만 그때는 무슨공동체학교라고 했는데 거의 초창기 대안학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이 공동체에서 농사를 지으며 강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변산공동체학교 이야기다. 변산공동체학교는 학교가 따로 있지 않고 마을 전체가 학교다.

“관악산 쓰레기를 꽤 여러 해 동안 치웠어요. 산에 갔다가 뒷마루처럼 놓인 평상이 있잖아요. 그 곳에 앉아 쉬다보니 평상 밑에 라면봉지 같은 게 빼죽나와 있어요. 뭔가 있어서 당겨보니 라면봉지, 과자봉지 따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나와요. 나무 꼬챙이로 파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10년이 넘는 쓰레기들이었어요. 옛날 라면봉지라던가 라면땅 봉지, 과자봉지, 그리고 통조림 깡통이 많았죠. 그 다음에 소주병, 막걸리병 순이었어요. 먹고 난 뒤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그냥

버려둔 것이지요.”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산을 관리하는 이들이 가지고 내려오기 귀찮으니까 구멍이 파고 쓰레기를 묻고는 흙을 덮고 나서 평상을 놓았다는 말이다.

“라면봉지라던가 라면땅봉지, 통조림, 술병엔 모두 제조연월일이 쓰여 있으니까, 학생들은 ‘앗! 이 건 내가 갓난아기 때 쓰레기다. 이걸 몇 살 때 쓰레

평상 밑 빠져나온 비닐을 당기니

라면봉지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기다’ 하면서 깔깔했어요.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김자경실장네 자제들이 어릴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개들한테 ‘이게 너희들보다 나이를 더 먹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웃곤 했죠. 탄 사람은 산에 갈 때 배낭을 메고 가는데 저는 곡괭이를 가지고 갔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산에 가는데 왜 곡괭이를 가지고 가냐고. 물었어요. 평상을 치우고서 쓰레

기를 들어내야 하는데, 땅이 단단하게 굳어서 삽질을 해도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아 곡괭이로 깨내야 했지요. 학생들이 늘 40~50명 함께 갔었는데요. 한 사람 앞에 쓰레기를 큰 비닐봉지 하나 가득 채워 내려왔어요.” 보통 평상 하나에 쓰레기가 1톤 트럭으로 하나씩은 나왔죠. 그 일을 한 3년 남짓 했다. 그런데 학생들 의무봉사활동시간이 줄어들자 나오는 학생이 줄어 쓰레기 캐는 일이 어려움에 부딪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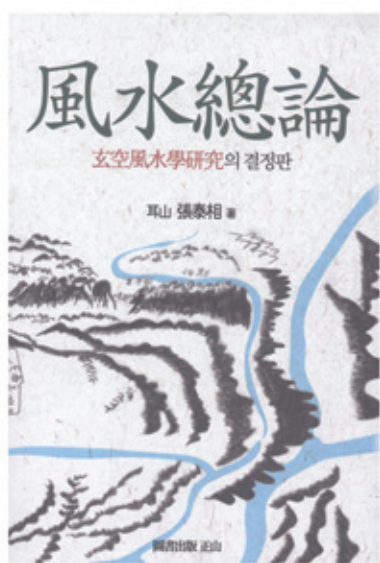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서는 산에 쓰레기만 캐러가기보다는 회원 산행모임을 만들어 산을 타면서 산에 버려진 쓰레기도 주우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도랑 치고 가재 잡지는 얘기. “의기투합해서 산행모임을 만들어 이름을 ‘맑고 향기롭게 산행모임’이라고 지었어요. 99년도인가? 동두천 소요산에서 첫 산행을 시작했어요. 산에 갈 때 짐게하고 비닐봉지는 꼭 챙겨갔습니다. 그렇게 산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운 횟수가 한 6~7년 됩니다. 관악산에서 학생들과 쓰레기를 캐던 일까지 보태면 10년이 넘도록 쓰레기를 치웠어요.” 꾸준히 이어져다보니 산에 자주 오는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져서, 회원들이 쓰레기를 주우면 산행을 하는 분들이 수고한다면 먹거리도 나눠주곤 했다. “이런 얘기 드리기 쑥스럽지만 그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정부에서 홍보도 하다 보니 등산로 둘레 눈에 띄는 곳에 있던 쓰레기가 차츰 사라졌어요. 그 뒤로 저희는 외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웠죠.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저희 산행 모임 식구들이 쓰레기를 줍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은 작고 소박하다. 그러나 낙숫물이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작은 파장이 모이고 이어지면서 함께 공명(共鳴)하면 온누리를 흔든다. 쓰레기가 줄어들자 맑고 향기롭게 공식 산행모임은 해산했다. 그렇지만 모임식구들이 그대로 남아 산행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친목모임으로 성격을 바꾼 지도 4~5년이 넘었다. 그러나 이들 산행에는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와 짐게가 늘 함께한다.

꾸준히 자원 활동 다니고, 또 수련회 때 가서 거들곤 하는 설송기사를 지켜보던 법정 스님이 지금 길상사 지장전 자리, 조그만 건물에 있던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로 부르셨다. “스님은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맑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애쓰니까 고맙다’고 말씀하시곤 스님 책 《산에는 꽃이 피네》에다 사인을 해주시며 격려해주셨어요. 제겐 더없는 영광이죠.”

스님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을까? “신문에 실린 스님 칼럼과 《무소유》를 읽고 ‘참, 청빈하고 수행이 깊으신 스님’이라고 느꼈어요. 그 때 이미 결혼을 했을 때인데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출가해서 스님마냥 살아봤으면 진짜 좋았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스님 덕분에 ‘맑고 향기롭게’와 인연 맺게 되어 고맙죠.” 설송기사는 ‘맑고 향기롭게’ 취지가 너무 좋아들려 사람한테 많이 권했다. 함께하자고. ‘모희원’모임에는 그때부터 함께하는 분들이 여러 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風水總論)

오묘불가사의의한 현공풍수의
비밀을 완전히 해석한책



- 현공풍수 지리학
 - 양묘풍수 삼합수법
 - 황제택경 개론
- 산에 올라 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메는 지사는 참다운 지사가 아니다.形氣를 보고 바로 꽃아 올라가 理氣로 증명하는 한국 풍수학계의 최고봉 장태상 교수의 역작!!

불교TV에서 풍수 강의 중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泰相 책값:37,000원

구입문의 : 도서출판 정산(正山) / (주)안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안메소프트
온라인 구매 : www.jsbook.co.kr 에서 검색 후 구매 가능

마하연투어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성지순례

출발확정!!

- 7월 27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혜호 6일 1,990,000원 → 1,790,000원
- 8월 24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혜호 7일 2,040,000원 → 1,840,000원

* 모든 경비 포함된 상품입니다.

※ 단체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1,140,000원
출발일 : 7월 20일 / 8월 16, 19, 24일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7월, 8월 출발 가능

-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699,000원 부터 -
-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 특급 5일. 749,000원 부터 -
-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649,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설승거사가 95년도 불교에 처음 입문할 때, 제대로 배우자는 생각에 조계사 불교대학을 2년 동안 다녔다. 졸업하고 나니까 지도를 했던 스님이 포교사 고시를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권했다. 공부했으면 되었지 무슨 포교사나 싶어 팔찌 뒤엎지만 거듭되는 권유에 마지못해 시험을 봤는데 딱 붙었다. “그즈음 포교사단을 새로 결성할 때였어요. 말이 어눌한 편이라 법회를 주관하는 법사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얼굴을 내밀었죠. 그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불교사회복지 강의를 한 해 동안 들었어요.”

마침 설승거사와 함께 사회복지 강의를 들은 도반 가운데 자재정사(現 묘회원)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있었다. 그 인연으로 그곳을 봉사처로 삼아 포교사단에 포교봉사팀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포교사들하고만 봉사를 했어요. 2000년이었어요. 그 때 자재정사에서 식사재를 자급자족하려고 발동사를 한 3000여 평 지었는데 우리는 발일을 도왔어요.” 그렇

풀과 꽃, 나무를 가로지르는
빛 한 줄기를 모으면 마법이

게 몇 해 지난 어느 겨울 신규 포교사들이 왔다. 여자 포교사들도 꽤 있었는데 마침 겨울철에는 농사일이 없으니까, 외양간에 가서 모아놓은 거름을 경운기에다 싣고 밭에 가서 뿌리는 일을 했다. “겨울에 일하잖니 여간 춥지 않습니까? 냄새도 몹시 나니까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도 감당하기에 벅했어요. 너무 힘들니까 포교사들이 한뼘씩 빠지더니 분위기가 활짝 펴졌어요.”

사람이 빠진 자리를 메울 길은 없고, 손은 달려서 고민하던 설승거사는 하는 수 없이 맑고 향기롭게 산행모임 식구들한테 “내가 포교사를 하면서 자재정사라는 곳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손이 모자라서 그러니,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처음에 두 사람이 쫓아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 가니까 공기도 좋고 일할 맛이 나더라’면서 부추겼어요.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산행모임 식구들이 여럿 동참을 하게 되었죠.” 맑고 산행모임 식구들은 자주 늘어나니까, 포교사들은 더 위축되어서 나오지 않아 자재정사 포교봉사팀에는 설승거사 혼자만 남게 되었다. 자연스레 포교사단 포교봉사팀은 해체되고, 맑고 향기롭게 나눔모임이 되었다. 포교사단 포교봉사팀 산파였던 설승거사는 뜻하지 않게 맑고 향기롭게 묘회원 나눔모임 산파역도 한 셈이 되었다. 물이 골 따라 흐르듯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난다.

“자재정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곳인데요. 자재정사가 묘회원이란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들이 가면 따뜻하게 맞아 주셨어요. 봉사자들이 가면 재가자들이니까, 절이지만 일할 때 막걸리를 먹어야 힘이 난다면서 막걸리를 받아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곤 했어요. 그 때 계시던 총무스님이 진짜 집처럼 편안하게 해 주셨어요. 냉장고나 주방에 가서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꺼내다 먹으라고 그럴 만큼, 새참으로 과일이나 막걸리 주전자를 스님이 손



설승 거사는 불교에 입문한 뒤 1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동해 왔다.

수 갖고 오서가지고 농사일할 때는 배가 든든해야 한다면서 따라 주시곤 했어요. 가을걷이를 할 때는 한 해 동안 빼 빠지게 애썼는데 맛이라도 조금씩 봐야 된다고 봉사자들에게 무를 한 두 개씩이라도 꼭 챙겨 돌려 보내셨어요. 그냥 간단도 손사래를 쳐도 맘 흘리고 농사지었는데 이런 보람이라고도 이야기. 그냥 가면 당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농사는 한 철이다.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지만, 여름에도 비가 온다든가 가을걷이 끝내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청소나 주방청소도 해드리고, 할머니들만 계시는 곳이나 여자회원들은 어르신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김장할 때 양념도 미리 만들어 드리고, 장 담글 때는 매주를 풀어서 장 담글 준비해드리고, 일 년에 한 차례는 사무국 지원을 받아 버스 대절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가기도 했다. “지난해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양온천에 가서 온천욕을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설승 거사. 그는 17년을 한결같이 몸으로 말해왔다.

“그림은 그저 부분 합이 아니다. 소는 그냥 소이고, 초원은 그냥 풀과 꽃이고 나무를 가로지르는 햇빛은 그냥 빛 한 줄기지만, 모두 모으면 마법이 벌어진다.” 영화 ‘플립Flipped’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는 말이다. 화엄경(華嚴經)은 본디 잡화경(雜花經)이다. 화엄(華嚴)이란 잡화엄식(雜華嚴飾)을 줄인 말로 들관에 한껏 피어난 화려하거나 소박하고 이름 없는 꽃들이 공명(共鳴)하는 그림이다. 그처럼 ‘맑고 향기롭게’란 모두가 평등하여 제 나름대로 된 자태와 향기가 어우러져 공명하도록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삶,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은 높낮이 없이 아우러지는 공평한 세상을 일컫는다.

(지난 연재 김용태 교수
는 김영태 교수, 1989년은
1994년 잘못이었기에 바로
잡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감로(甘露)

뒷산에 오르면 시선을 끄는 꽃이 있다. 싸리나무 꽃이다. 잎은 새 잎이고 짙은 자색과 홍자색이 앙상불을 이룬다. 조물주는 분주히 채필(彩筆)을 번갈아 들어가며 저리도 절묘하게 색의 조화를 배합해 냈을까. 그렇게 되기에는 자연의 내적인 지점에 철저히 따랐을 것이다. 비단 자태를 뽐내는 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육중한 바위나 아니면 소나무의 한 가지에서도, 변화무쌍한 죽순에서도 나의 사색의 촉수(觸手)는 방위에 무관하게 자유로움을 노래한다.

몇 일전 정동진을 지나 양양으로 가는 길 내 안개가 엄습하였다. 아침 시간이라면 몰라도 오후인데 사방을 안개로 수놓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있지 않고 내가 숨 쉬고 있는 이곳이 바로 도원이구나 여겨졌다. 어드메 줌 가다 보면 무지개가 바다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 하늘에선 감로수가 내려 조목의 윤기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감로는 범어로 amrita 이다. ‘불멸의’, ‘초

음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본래성(本來性)을 깨닫는 것이다. 자기의 본래성이란 도대체 뭇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 깨달음의 문이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의 경지는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분석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명쾌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에서는 깨달음의 진실한 상태를 위음이전(威音以前)이라고 표현하였다. 위음이란 위음왕불(威音王佛)로서 〈법화경〉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에 나오는 부처님을 말한다.

위음왕불 이전의 일이란 일체의 차별이나 대립이 나타나기 이전의 세계이다. 그 세계를 인간의 본래성에 비유하여 설한 것이 위음왕불 이전이다.

더위가 턱턱 솟아차 하다 보면 주변에서는 정량음료를 찾지 마련이다. 손에 쥘 음료로 갈증도 해소되고 답답했던 가슴도 뻥 뚫릴 것이다.

고대 인도인은 깨달음의 경지를 술로 표현
깨달음은 자신의 본래성품을 파악하는 일

묵의 뿌리’, ‘알코올 성분이 많은 술’을 의미한다. 감로는 제천(諸天)이 사용하는 음료수이고 또한 불로불사 한다고도 한다. 불교 이전부터 제천의 음료로서 소마주(soma 酒)를 마시던 불사(不死) 한다는 신앙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주(天酒)라 하여 불사의 이상경이라 하였으며 불교에서는 주로 열반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 불교에서 감로는 도솔천의 달콤한 영액(靈液)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고뇌를 치유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사자(死者)를 소생시키는 최고의 자미(滋味)에 비유하였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는 문을 감로문(甘露門)이라고 한다. 선문에서 감로문이라고 하면 기량(器量)이 뛰어난 선승의 교화방법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수행자를 교육하는데 딱 맞는 딱 높은 선승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감로문(甘露)라고 하면 불교 이전의 바라문 철학시대부터 전승된 이상(理想)의 경지로써 불교에 유입되어 죽음으로부터 해탈한 열반의 세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고대 인도인이 최고 깨달음의 경지를 달콤한 술로 표현한 것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깨달

고래도 날씨와 무관하게 머리가 지끈거리고 답답한 가슴을 가누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그럴 때 감로법문이 단비 내리듯 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터인데 할 것이다. 감로법문은 신들이 마시는 소마주에 비유하여 말하기도 한다. 〈장야할경〉에 “내가 너희들을 가엾이 여겨 지금 감로법문을 설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일상에서 황금분할(黃金分割)을 생각한다. 대소의 비는 약 1.618 대 1 이다. 일상에서 절망과 희망, 행복과 불행, 정의와 불의, 넘침과 모자람 등이 동반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에게 불행은 전혀 없는 듯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그에게도 불행이 동반하게 마련이다. 희망과 절망 또한 그렇다. 그렇다면 그 무엇에 일희일비할 것이 있겠는가. 찰라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콧 등 위에 막대기를 세울 수 있겠느냐고 한다면 이내 고개를 젓고 말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라. 누가 서서만이라고 단서를 달지 않았는데도 누워서 세우기를 할 엄두를 내지 않는다. 누가 그대에게 올라가기를 쉬웠던가. 이는 감로법문을 체득하지 못한 중생의 허상에서 연유한다.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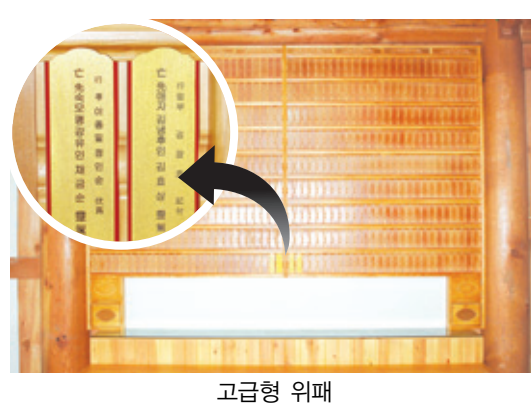
운장대 인등



운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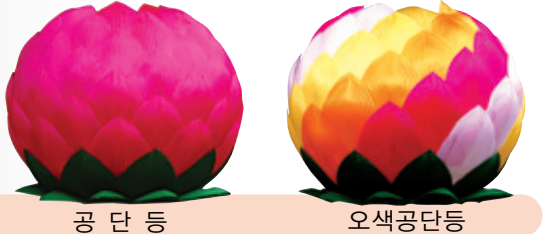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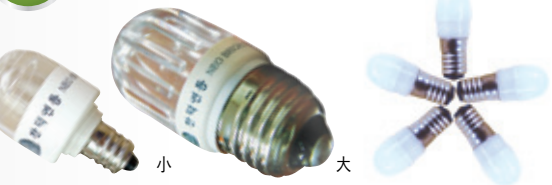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중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